

학술지평가 결과 분석

기획평가위원회
임정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학술지평가 결과 분석

기획평가위원회 임정기

서론

국내 의학 분야의 정기학술지는 최근 급속히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개방적 정보화 사회로 가는 현 추세에서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는 회원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KoreaMed에 등재하는 학술지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술지평가를 하고 있다. 1997년 1차 평가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6차에 걸친 평가에서 총 62종의 학술지를 평가하였다. 편집인협의회 평가 방법, 결과 및 분석, 그리고 평가가 갖는 의의를 기술하기로 한다.

1. 평가 방법

1). 평가단의 구성

학술지의 자체 평가는 해당학술지의 편집인 혹은 편집인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학술지 실물평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기획평가위원이 담당하였다. 자체평가는 1인, 실물평가는 3인이 독립적으로 하였다. 협의회 조사항목은 기획평가위원 중 문헌정보 전문가가 담당하였다.

2).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크게 자체평가, 실물평가, 그리고 협의회조사항목 등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자체평가는 학술지의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물평가는 편집의 일관성, 정확성, 간행의 질 등을 평가하는 13개항, 그리고 협의회조사 항목은 학술지의 국제화, 보급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자체평가에서는 편집인의 교체 빈도,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업무 지원 관련 사항, 원고게재 결정방법, 상호심의 소요기간, 상호심의 결과, 원고 게재 거부율, 상호심의 제도의 운영, 발행 간기 및 일자 준수 여부, 저작권 보호 조치, 발송처 범위 및 관리, 그리고 찾아보기표 작성 여부 등을 평가하였다.

실물평가에서는 표지도안 및 오자 여부, 투고규정 포함사항, 논문의 제목 및 저자 관련사항, 초록, 본문의 오자 여부, 참고문헌의 인용방식, 표나 설명문안의

배치, 사진의 선명도 및 배치, 도형그림의 전문성, 종이와 인쇄상태, 학술지에 관한 별쪽의 안내 등을 평가하였다. 협의회조사 항목에서는 국내 의학도서관 비치 현황, 자체학술지 인용도, 국제 전문 초록잡지 등재여부, Index Medicus 및 SCI Search 등재여부, SCI 인용 논문 편수, 그리고 SCI impact factor 등의 면에서 평가하였다.

3). 점수화의 원칙

세부평가항목 마다 5개 이내의 문항을 제시하여 답하게 함으로써 각 세부항목 평가결과를 0-5점의 점수로 나타내었다.

4). 평가 방법

- (1). 자체 평가: 자체평가위원이 사전에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당일 실무 자료를 제시.
- (2). 실물평가: 조별로 사전에 배부된 해당 학술지 (위원 당 3-5편)를 항목에 따라 사전 평가하고, 당일 조별 회의에서 토의를 걸쳐 확정. 동일 학술지에 대하여 3인의 평가결과를 수합 평균함.
- (3). 평가결과 집계 및 판정
 - (a). 각 위원이 평가한 실물 세부 평가 항목별 평균값을 산출
 - (b). 세부평가항목별로 평점이 3.5 이상이면 우수로 판정
 - (c). 학술지별로 자체, 실물, 협의회조사항목의 평균 평점을 산출
 - (d). 각 세부평가항목의 비중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5). 전 항목의 통합 평균이 2.5 일 경우 KoreaMed에 등재

5) 평가결과의 발표

- (1). 평가결과는 공개를 전제로 함
- (2). 평가위원은 공개하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발표하지 않음.

2. 평가 결과

1차부터 5차 평가까지 총 48개 학술지가 평가를 받았으며, 이중 2개 학술지는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자체평가의 경우 평점4.43 (대한신경과학회지) 부터 2.38로서 대부분 3-4로 평가하여 타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후하게 자평하였다. 실물평가는 평점 4.62 (생화학분자생물학회지) 부터 1.07까지 폭이 매우 컸으며, 이는 평가위원의 객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보다 중시하여야 할 부분이다. 협의회 조사항목에 관한 평가는 가장 높게는 평점 2.67 (생화학분자생물학회지) 부터 0.17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점1.6 이상의 학술지는 3개 (생화학분자생물학회지, 미생물학회지, 바이러스학회지) 밖에 되

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학학술지의 국제화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고 향후 각 학술지의 지향 목표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1). 차수별 평가 결과

제1차 평가를 받은 12개 학술지의 총평점 평균은 2.87, 제2차 평가를 받은 9개 학술지의 총평점 평균은 2.77, 제3차 평가를 받은 11개 학술지의 총평점 평균은 3.06, 제4차 평가를 받은 8개 학술지의 총평점 평균은 3.05, 그리고 제5차 평가를 받은 10개 학술지의 총평점 평균은 2.72이었다. 제 3차, 그리고 제4차 평가 결과가 제1차 및 제2차 평가결과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아진 것은 아마도 평가기준에 맞추어 편집체제 정비 등 노력의 결과가 일조를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제5차 평가의 평균이 2.72로 그 전 차수의 평가결과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10개 학술지 중 정회원 학술지는 2개인 반면 준회원 학술지가 8개 이었던 것으로 설명된다. 즉, 정회원 학술지의 평균은 3.04이었는데 비하여 준회원 학술지의 평균은 2.64로 현저하게 낮았다.

2). 정회원, 준회원, 및 미가입 학술지의 평가결과 비교

정회원 학술지 39종의 평균점수는 2.94(2.85-4.03)인 반면, 준회원 학술지 8종의 평균점수는 2.61 (1.47-3.10)로서 정회원 학술지가 준회원 학술지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다. 미가입 학술지 1종의 평점은 2.17로서 더욱 낮았다. 이는 학술지의 지령, 회원의 숫자, 학술지에 대한 회원의 열성도 등의 면에서 정회원 학술지의 상대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3). 문턱 이하로 평가 받은 학술지에 대한 분석

제5차까지 평가 받은 48종의 학술지 중 7종이 평점2.5이하의 점수를 받았다(제1차에 2종, 2차에 3종, 4차에 1종, 5차에 1종). 이 중 2종은 차기 차수에 재평가를 받아 2.5 이상의 평점을 받은 반면, 나머지 5개 학술지는 아직 재평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중에는 중심적인 정회원 학술지 1종도 포함하고 있다. 재평가를 받은 2개의 학술지의 지령은 상대적으로 년소한 것으로 이러한 학술지 일수록 편집체제 등의 정비에 순발력있게 대처하는 반면, 지령이 년로한 학술지일 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

4). 제5차 평가 학술지의 항목별 평가 결과

1999년 9월 1일 시행한 제5차 평가를 받은 10개 학술지의 평가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1). 자체평가 결과

10개 학술지의 자체평가 평균 평점은 3.67 (2.38 - 4.0)이었다. 이중 편집

업무 지원 사항 (편집전담 직원, 영문교정인, copy editor, 편집사무실 등)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고, 이에 비하여 편집간기 및 발행일 준수, 찾아보기표 작성 등의 항목은 높게 평가하였다. 잦은 편집인의 교체 또한 낮은 평가의 원인이었다. 1개 학술지는 원고의 상호심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상호심의에 관련된 5개 항목에서 0점 혹은 1점으로 평가하였다.

(2). 실물평가 결과

실물평가의 평균 평점은 2.91 (1.07 - 3.7)이었다. 10개 학술지 중 실물평가 13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한신경외과학회지의 경우 표, 사진의 선명도, 도형그림의 전문성, 종이와 인쇄상태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한눈에 산뜻한 학술지로 인식이 되나, 본문 체제의 일관성, 투고규정 이나 게재논문 목록 기술의 정확성 등 편집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이러한 점을 개선하면 더욱 좋은 학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대한보험의학회지의 경우 우수 평가를 받은 항목은 한 항목도 없었다.

(3). 협의회 조사항목 결과

협의회 조사항목의 평점은 0.17에서 0.67로서 다른 학술지의 평가에서와 같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국내 의학학술지의 국제화 분야에 보다 집중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학술지평가가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학술지 평가를 시작한 이래로 많은 학술지가 생의학 학술지의 통일양식에서 권장하는 양식에 맞도록 투고규정을 개정하였다. 각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5차의 평가 기간 중 1차 평가에서 평점 2.5이하로 재 평가를 받은 2개의 학술지에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즉, 학술지 A의 경우 1차 평가에서 평점 2.39를 받았는데 2차 평가에서는 평점 2.78을 받았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자체평가에서는 2.79에서 3.38로, 실물평가에서는 2.96에서 3.3로 각각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이중 투고규정 관련사항은 2.0에서 4.3으로 큰 폭의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과정에서 제시한 학술지의 발전을 위한 지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학술지 평가 작업은 일관성 있게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목표로 한 평가를 통한 학술지의 질적 향상 도모에 근접하고 있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1. 국내의학학술지 시범평가회 및 한국메드라인 사업계획 설명회.
서울: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997.
2.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소식지. 1997제6호, 1998 제7-9호, 1999 제10-11호.

표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학술지 평가항목 개요

항목	세부 항목	항목별 평가 내용 요약
1 자체평가	1-1	편집인 교체 빈도
	1-2	편집위원회 회의 구성, 실적
	1-3	편집업무 지원 관련사항
	1-4	논문게재 결정 방법
	1-5	상호심의 소요시간
	1-6	상호심의 1차 심사결과
	1-7	상호심의 rejection 또는 withdrawal rate
	1-8	기타 상호심의제도 운영
	1-9	정기발행 여부
	1-10	발행일자 준수 여부
	1-11	저작권 보호 조치(이중게재 방지)
	1-12	발송처 범위
	1-13	발송처 관리
	1-14	찾아보기표(index) 작성 여부
2 실물평가	2-1	표지 도안, 오자 유무
	2-2	투고규정란, 판권관리, 논문목록 등의 인쇄상태 및 오자 유무
	2-3	투고규정 포함사항(I)
	2-4	투고규정 포함사항(II)
	2-5	논문제목, 저자, 소속 사항 등의 체제 및 오자 유무
	2-6	영문 (또는 국문)초록의 체제와 오자 유무
	2-7	본문의 체제와 오자 유무
	2-8	참고문헌 인용방식, 문헌나열방식
	2-9	표의 설명문안과 배치
	2-10	사진 선명도와 배치
	2-11	도형그림의 작성방법, 글씨 크기와 배치
	2-12	종이와 인쇄상태
	2-13	학술지의 목적, 범위 기타 별쪽의 안내
3 협의회 조사	3-1	국내 의학도서관 비치 상황
	3-2	Journal self-citation rate
	3-3	국제 전문 초록 잡지 등재 여부
	3-4	Medline/Index Medicus 또는 SciSearch 등재 여부
	3-5	SCI 인용 논문 편수
	3-6	SCI impact factor